

‘표’에 대한 메모

그림으로서의 표

표는 그림과 마찬가지로이다. 편하게 그릴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면 되고 굳이 L^AT_EX의 tabular로 표를 그리려 할 필요가 없다. 이 간단한 메모는 KTUG 게시판 5859번 질문에 제시된 표를 예로 하여 “그림으로서의 표”와 “표(tabular)로서의 표” 문제에 대한 비망록으로 작성한다.

표 1: LyX에서 그린 테이블

GA		Population size	Crossover rate	Mutation rate	Crossover and Selection
		30	0.83	0.03	One-point and Roulet
PSO		Population size	Inertia weight	C1	C2
		30	0.6	1.49	1.49
Island Model	PSO1	Population size	Inertia weight	C1	C2
		10	0.6	1.47	1.51
	PSO2	10	0.6	1.49	1.49
	PSO3	10	0.6	1.44	1.48

표 2: HWP에서 그린 테이블

GA		Population size	Crossover rate	Mutation rate	Crossover and Selection
		30	0.83	0.03	One-point and Roulet
PSO		Population size	Inertia weight	C1	C2
		30	0.6	1.49	1.49
Island model	PSO1	Population size	Inertia weight	C1	C2
		10	0.6	1.47	1.51
	PSO2	10	0.6	1.49	1.49
	PSO3	10	0.6	1.44	1.48

위에 예시된 두 개의 표 가운데 1은 LyX에서 그려서 L^AT_EX으로 export한 tabular 표이고, 2는 워드 프로세서 한글(HWP)에서 그려서 그림으로 추출한 것이다. 여기서는 편의상 HWP를 표그리기 도구로 이용했지만 MS Word 2007 등에서는 훨씬 더 예쁜 표를 더 쉽게 그려낼 수 있었다.

LyX에서 표 그리기

표 1은 좀 설명해야 할 것이 있다. 그림 1은 LyX으로 이 표를 편집 중인 화면이다. 마치 워드 프로세서의 표 편집기와 유사하게(익숙해질 때까지 약간 시행착오를 해야 하기는 하지만) 편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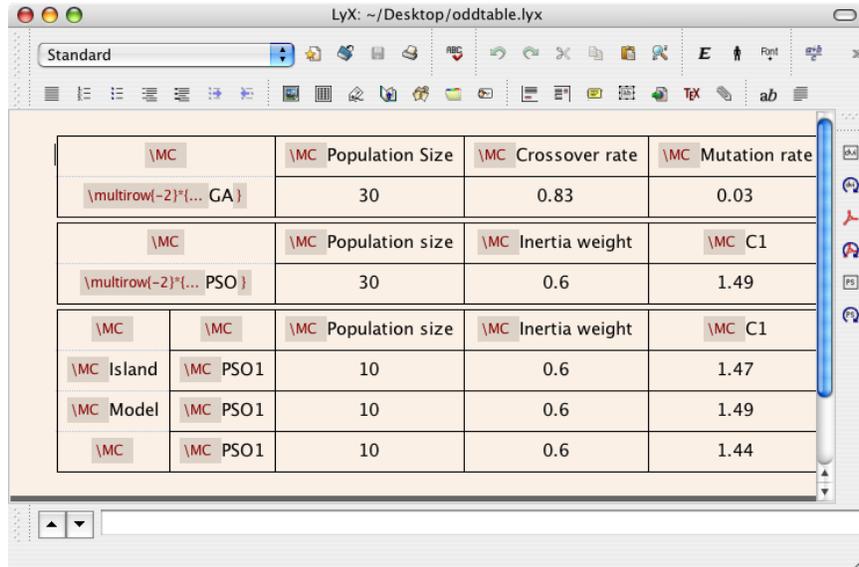


그림 1: LyX 편집 화면

표 편집을 할 수 있다. 사실 tabular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multicolumn 같은 명령을 수도없이 계속 쳐넣어야 할 때인데 이런 괴로움을 대폭 덜어준다.

이 표 그리기에서 최대 난관은 \rowcolor의 사용이다. \rowcolor는 성격상 그 행의 맨 처음 커맨드로 와야 하는데, 첫번째와 두번째 칼럼을 \multicolumn이나 \multirow로 묶어야 하는 이런 표에서 \rowcolor 위치는 항상 에러를 불러일으킨다. 현명한 선택은 이렇게 위치를 타지 않는 \cellcolor를 사용하는 것이다. 약간 귀찮기는 하지만.

그 다음으로 \multirow와 \cellcolor의 사용이다. 이 때는 multirow 명령을 아래 행에 두고 스패를 -2로 하라는 트릭이 multirow 문서에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래쪽 셀에 색이 먹어들어서 글자의 반이 가려진다.

그림에서 \MC라고 나오는 ERT는 \cellcolor{mygray}라는 긴 문자열을 ERT에 넣으면 표 전체의 가로 길이가 한 화면에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정의한 사용자 명령이다.

HWP로 그린 표

표 그리기 쉬운 대표적인 워드프로세서는 역시 한글. 한글의 성공 요인 중 하나가 표 그리기가 쉽다는 점이 아닐까 한다.

표 2는 HWP에서 폰트를 cmr10으로 맞추고 그린 표이다. 최근의 HWP 2007은 문서의 pdf export가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pdf로 옮긴 다음 pdfcrop을 돌려서 여백을 잘라내고 \includegraphics한 것이다. 자세히 보면 같은 cmr10이라도 HWP이 조판한 것은 단어 내의 글자 간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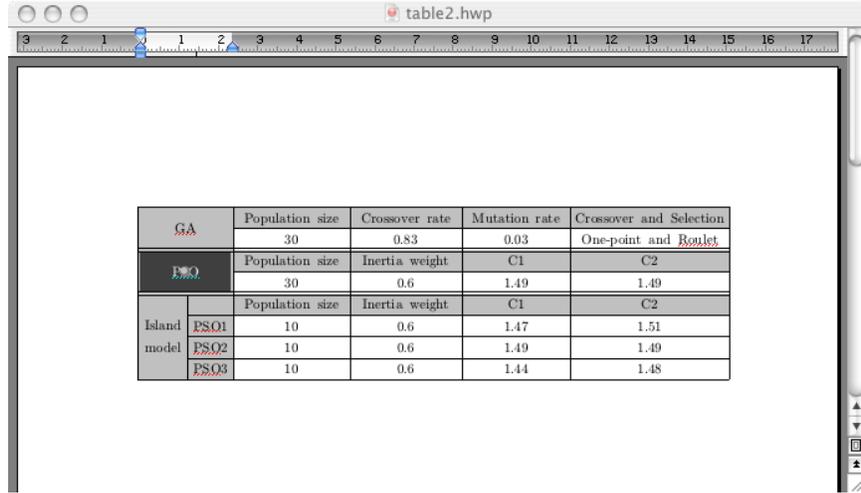


그림 2: HWP로 표 편집

라든가 하는 텍스트 조판의 요소에 있어서만은 어딘가 영성한 느낌을 주는 것을 피할 수 없는데, 간단한 표 정도에서야 용서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림 2는 한글로 표를 편집하고 있는 화면이다.

끝으로

이 표의 생긴 모양으로 보건대, 영문 논문에 삽입되는 것치고는 대단히 “한국식” 표라는 느낌이 든다. 세로줄의 남용이야말로 한국식 표의 최대 특징이면서 동시에 피해야 할 관행 중의 하나이다. 표를 촌스럽게 만드는 것이 이 세로줄이다.

이를 피하는 방법이 booktabs 표인데, 위의 표를 booktabs로 만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표 3: booktabs table

GA	Population size	Crossover rate	Mutation rate	Crossover and Selection
	30	0.83	0.03	One-point and Roulet
PSO	Population size	Inertia weight	C1	C2
	30	0.6	1.49	1.49
Island Model	Population size	Inertia weight	C1	C2
PSO1	10	0.6	1.47	1.51
PSO2	10	0.6	1.49	1.49
PSO3	10	0.6	1.44	1.48